모자라는 사람 과거 내모습으로 보라

☞ 17면에서 계속

하게 한 번 해보세요. 오직 주인공만이 죽이든 살리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배 · 술 끊으려면…

문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 사회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 인생이 시작된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느 때 보면 담배를 물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스님 말씀대로 주인공에 맡기고 끊어보려 하지만 믿음이 적어서인지 순간 경계에 끄달려 다시 실패하고 그럽니다. 속으로 들뜨고 즐기는 습이 깊이 내 몸에 뿌리박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108배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했으나 이틀만에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게으르고 미련한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간단한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꾸중과 가르침을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기도문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붙어서 사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지구에는 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도 쓸모 없는 게 없어요. 공존해서 돌아가면서 분담을 해서 자기의 소임대로 해나가는 부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게 포착을 못한 사람은 '에이구! 요것 때문에 내가 귀찮아 죽겠고, 조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고 모두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겠걸랑 우리 몸뚱이 속을 좀 보십시오. 지구라고 생각하고 혹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속에 뭐 별거 다 있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징그러운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성을 움죽거리게 하고, 이런 것도 나오게 하고 저런 것도 나오게 하고, 아주 건강하게 막 돌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도 쓸모 없는 게 없어요. 하다 못해 뱃속의 거위 하나도 쓸모 없는 게 없어요.

예전에 어느 사람이 자꾸 배틀배틀 앓고 옆구리가 이만큼 붕쳐 가지고는 앓으니까 병원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냥 내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탁발을 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서 거위가 뭉쳐서 저렇게 애를 쓰니 거위 약을 먹고 담배를 알맞게 좀 먹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전에는 거위 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좀 먹이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담배를 하루 세 번씩 일주일을 피우니까 그 뎅어리가 다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살아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약 아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모두가 지나치게끔 하니까 병이 되는 거지 정도에 알맞게만 해서 굴리고 돌리면 다 약이에요.

술 먹지 말라는 것도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주로 자기의 체질에 맞게 알맞게 먹으면 피 순환이 잘 되고 건강에도 좋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넉 다운이 되게 막 먹어대고 하니까 몸 안에 중생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작용의 감당을 못하니까 몸뚱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중도, 중심을 지켜라 이거죠. 중도로써 중심을 지킨다면 항상 회전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다툼을 지나치게 하면 싸움이 돼서 이혼을 하기도 하죠.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구요. 인생살이가 뭐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뻤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요만한 것 가지고 그냥 툭탁거리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큰 것까지 그냥 파산이 돼 버리죠.

그러니 모두가 마음 중심의 지조를 지키면서 항상 한마음으로 마음에 불을 붙이고 사세요. 거기에다 붙이면 내면 세계나 바깥 세계가 아주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것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굴림을 굴려야 밝아진다 이겁니다. 하여튼 너무 지나치면 안되겠죠. 하지만 그 양을 잘 조절하여 생활에 맞게, 내 몸에 맞게 하는 것도 마음의 주인이 이끌어 주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기다가 맡길 수 밖에요.

하여튼 우리 모두가 중심을 지켜서 중도로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패기와 광대한 자유를 갖게끔 정신계를 길러야만 자기 자신의 문제, 생활에서 오는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돌이 아니게 타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문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주 다급한 일로 인해 기도를 하여 가피를 입고, 그런 연고로 신심을 얻어 불자가 되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못난이는 스스로 알고 찾아왔음에도 보리심은 커녕 신심마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근기가 낮거나 아니면 이 생에 복이 모자라 해도 해도 아니 될 때, 도무지 어떤 방편으로도 발전은 없고 신심마저 회복되지 않을 때, 번뇌와 산란함에 온 심신을 지배당했을 때, 그리하여 오도가도 못할 때, 비록 그러할지라도 꼭 이것만은, 죽어도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지 스님께 여쭙니다. 스님께서 그동안 구구히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마음만은 꼭 잡고 있으라고 하는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답답한 것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잡고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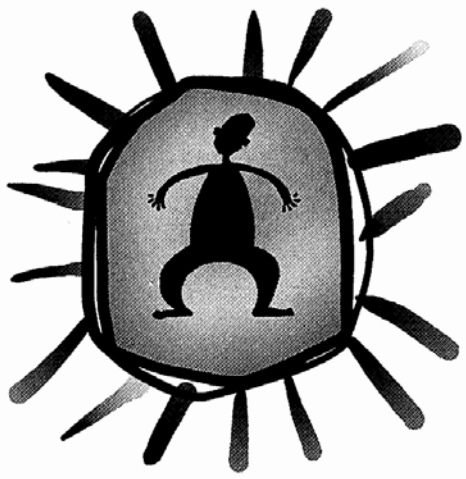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몸안의 모든것 전부가 나의것
악업 · 선업 한마음으로 돌려야

답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일체를 놓지 않으면 그릇이 비워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비워지지 않는 것을 그냥 비워지지 않았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야, 우리가 밥을 먹는 데도 그대로 있지 않더라. 똥을 싸더라.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그러더라. 그러니 항상 참나 생활이지 우리가 고정되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예 놓을 수가 없다고들 하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놓고 가면서도 놓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은 그냥 참나참나 살면서, 노래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서 탁탁 치우면서 돌아가면서도 '난 놓을 수 없습니다.' '난 놔지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놓고 가면서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요. 돈을 한 묶음을 쥐고 가더라도 그건 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쥐고 있다고 해서 고정되게 그냥 그것만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갖다가 놓습니다. 장 속에 넣든지 은행에 갖다 넣든지 증권에 갖다 넣든지 어디다 갖다 놓든지 하여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쥐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놓고 가는 겁니다. 관리만 했다 뿐이지 놓고 가는 겁니다. 내 몸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놓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바꿔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음식을 먹고,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면서 이것도 소화가 되고 저것도 소화가 돼야 좋지, 그런데도 능을 수가 없다니, 그러면 그것이 잔뜩 고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소화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거, 먹고 싶어서 우리가 먹으면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공장에서, 위장이니 간장이니 직장이니, 소장, 대장, 방광, 이자, 심장이니 하는 모두가 공장에서 회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를 하고 살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한마음 주인공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딱 일임을 하면, 어디 신호가 왔다, 어디가 아프다 한다면 이것을 거기다 딱 맡겨놓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팠거든요, 몸에서요. 그 자리에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호가 온 겁니다. '지배인, 이렇게 여기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이 해결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마음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공장장이고 뭐고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막아라. 하고서는 주인공에 돌 아니게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건 한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다. 일체를 놔라! 맡겨놔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으니깐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하지만 그 전력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활이 참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꿇어앉아서 해야만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대로 공(空)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맡겨놔라, 일체를. '일체'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나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뿐이라고 말로 집어서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각자 내가 아니면 누가 있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는 근본을 의지하고 맡겨놓는 것 외에 나를 따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되었다' 하는 생각에 갇혀서 후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주인공의 나툼이구나 하고 믿고 돌려놓는다면 금방 그 마음이 자취도 없이 화해서 바뀌어 집니다. 그러니 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참나 생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원로원장 : 양지은 원로위원 : 전파옹, 김정현
감찰원장 : 장혜운 문화원장 : 황보현

총무원
총무부장 장보일 재무부장 허지웅
교무부장 박보산 규정부장 신지담
사회부장 이법전 포교부장 박보민
총무국장 송보혜 교무국장 강보연
재무국장 박정혜

각교구종무원
서울 채정수 인천 박보산 경기 김보인
부산 황덕규 충남 한보각 광주 허지웅
전남 최보담 경남 김보경 울산 김청운
경북 정호진

종회의장 : 남지산 부 의 장 : 이보운 허지웅
사무국장 : 편보성
상벌위원장 : 이보운 선관위원장 : 김보경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칠보정사
전화 : 055)883-7771 · 7790 / FAX : 055)882-9916

대한불교 조계종
낙 산 사
주 지 지 홍
대 중 일 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TEL : 033)672-2448
FAX : 033)671-1445

사자산 적멸보궁
법 흥 사
주 지 도 완
대 중 일 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TEL : 033)374-9178
FAX : 033)374-9176

대한불교 조계종
건 봉 사
주 지 정영도
대 중 일 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TEL : 033)682-8100
FAX : 033)622-5994